

9

2017



양양소식

Vol. 269





COVER STORY



양양소식 · 269호

| 발행일 2017년 9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소식

Vol. 269

CONTENTS

희망양양

- 04 테마스토리 설악의 비경, 올해도 빗장이 열린다.
오색 만경대 45일간의 개방
- 06 야양사람 양양 오색 지킴이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오색분소 사람들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 선림원지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의기양양

- 10 이달의 군정소식
 - 10 2018년 창의시책 구상 보고회 개최
 - 11 예산 3천억 시대 · 지방채 제로 달성
 - 12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13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 14 해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본격추진
 - 15 군민 대토론회 개최
 - 16 현북면 어성전권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준공
- 17 양양의 이모저모
- 18 의정소식
 - 18 양양군의회, 케이블카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 19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양양군의회 하반기 의정연수

오감양양

- 20 이장통신 현북면 잔교리, 강현면 석교리
- 21 이게 최고자니
2017가을 천년의 향에 취하다. '양양송이'
- 22 양양에서 데이트 할까요
가끔은 혼자이고 싶을 때, 양양의 가을을 거닌다.

열린양양

- 24 책이야기 강물의 숨소리가 그림다 / 이달의 신간
- 25 정보꾸러미 9월 추천 일자리, 양양-제주 운항시간표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언어축제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만경대에서 바라본 만물상

설악의 비경, 올해도 빗장이 열린다.

남설악 오색 만경대 45일간의 개방

지난해 45년 만에 설악의 비경인 오색 만경대가 열려 가을 단풍보다 더 후끈 달아오른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 또다시 45일간의 오색빛깔 오색의 단풍을 만나기 위해 만경대를 찾아야 할 때다. 단, 올해는 무작정 떠나기보다는 탐방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미리 예약한 후에 만경대를 찾아야 한다. 지난해 갑자기 많은 탐방객이 찾으려다 자연훼손의 우려는 물론 탐방객들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예약탐방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한 다음, 여유 있게 만경대를 찾는다면 이번 가을 단풍 여행은 훨씬 즐겁지 않을까. 언제 오시겠어요? 만경대에.

가을 산행은 설악산이 최고 ‘단 45일간 허락된 만경대’, 10월 1일부터 ~ 11월 14일 까지

‘가을 산행과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는 명성에 맞게 가을에는 설악산이 탐방객들의 발길로 붐비기 시작한다. 올해 설악산의 단풍 시기는 9월 28일쯤 시작돼 10월 18일경이면 절정기를 맞이한다고 한다. 또한 만경대는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 탐방예약제로 개방하니, 지난해 만경대 탐방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 올해는 놓치지 말고 예약한 후 즐겁고 여유 있게 탐방을 하면 좋다. 만경대는 오래도록 묻혀 있었던 설악의 비경이다. 지난해 뜻하지 않게 한시적으로 개방된 것은 오색의 단풍 명소의 하나인 흘림골이 폐쇄되면서 새로운 오색 단풍지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빗장을 걸어두었던 만경대가 열린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고, 기대만큼이나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오색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남설악 오색지구는 오랫동안 오색약수와 오색단풍의 명성이 높아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한동안 탐방객들이 줄다가 지난해 53만 8천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만경대 개방 기간에만 19만 5천 명이 찾으며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흘림골 폐쇄로 오색 탐방객이 줄어서 시름이 컸던 지역민들은 만경대 개방이후 ‘식자재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모처럼 활짝 웃었다. 올해도 한시적인 개방으로 탐방객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단풍이 들듯 지역민들의 마음도 기쁘게 물들고 있다.



만경대

만경대에 올라 탁트인 전망과 만물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다.

만경대는 갑자기 크게 주목받았던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했다. 주차 문제를 시작으로, 길은 폭 1미터 정도인데 인파는 몰려서 대기하는 데만 한 시간 이상이 걸리고, 안전사고 위험도 컸다.

또 지난해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만경대를 탐방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볼거리가 없다는 반응이 70%나 되었다. 그 이유는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에서 만경대로 진입하는 길이 2km 정도로 짧고 오르막이어서 시야가 트이지 않아 멋진 풍광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

망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코스를 재단장해 오색약수터에서 출발해 단풍이 아름다운 주전골을 산책하듯이 걸은 다음 만경대에 올라 탁 트인 전망과 만물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하산하는 코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구간은 약 5.2km로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니 걷기에 좋고 풍광도 아름다운 오색의 이곳저곳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산행 후에 오색산채로 만찬을 즐기면 더욱 좋다.

만경대 탐방은 9월 18일 부터 격주 월요일에 예약하세요. 올해 탐방 예약제 실시

만경대 탐방예약제는 평일에는 2,000명, 주말과 휴일에는 5000명의 탐방객이 예약 후 탐방할 수 있다. 9월 18일 인터넷 예약을 시작으로 격주로 10월 2일, 10월 16일 세 차례 인터넷으로 90% 예약하고, 나머지 10%는 현장에서 접수한다.

오색약수터탐방지원센터에서 출입증을 받은 후 용소폭

포 탐방지원센터에 반납하고 만경대 탐방을 하면 되는 데, 인터넷예약은 국립공원관리공단예약통합시스템 <http://reservation.knps.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서 단풍이 더 곱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한다. 오색에서 오색찬란한 가을의 정취에 듬뿍 취해도 좋겠다.

note-

만경대 탐방로 2017년 10월1일(일)~11.14일(화): 45일간

만경대 탐방 예약 : http://reservation.knps.or.kr		
방문	예약	참고하세요
10.1(일) ~ 10.15(일)	9월 18일(월) 14:00~	*1인 최대 5인까지 예약
10.16(월) ~ 10.31(화)	10월 2일(월) 14:00~	*90% 인터넷 예약 + 10% 현장접수
11.1(수) ~ 11.14(화)	10월 16일(월) 14:00~	*방문예정일 하루 전날 오후5시에 예약

·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033-636-7700



양양 오색 지킴이

—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오색분소 사람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는 용소폭포에서 주전골로 이어지는 구간을 비롯해 대청봉을 잇는 구간까지 연령대와 등산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산세가 높기로 유명한 설악산을 가족과, 연인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또한 탐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양양 오색 지킴이,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오색분소 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안정맞춤, 설악산 오색지구

양양 오색약수 삼거리에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오색분소가 위치해있다. 1976년 3월 24일 문을 연 오색분소는 대청봉과 한계령, 용소폭포, 주전골, 흘림골 등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3.5%인 53.782㎢를 관할하고 있다.

올가을 만경대 재개방을 앞두고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오색분소(이하 오색분소) 직원들은 안전한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색분소엔 정춘호 분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직원들은 인허가 사항 관리, 시설보수, 구조 활동, 탐방객

안내, 쓰레기 수거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른 아침 전 직원의 회의가 끝나면 안전관리반의 경우 탐방로 점검과 함께 낙석과 고사목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오색지구를 총지휘하는 정춘호 분소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오색지구는 계곡 트래킹을 하기에 최적의 코스로 계곡과 기암괴석, 단풍이 조화를 이뤄 가을산행으로 최고죠”라고 자랑한다.



정춘호 오색분소장



서영원 안전관리반 팀장(왼쪽) / 현영록 반장

좋은 곳에서 일하니, 부러워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이런 곳에서 일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부러워요.”

오색분소 직원들이 탐방객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누군가에게 힐링의 장소지만, 직원들에게는 엄연한 일터. 서영원 안전관리반 팀장은 얼마 전 탐방로의 큰 돌을 치우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정작 자신들은 돌볼 새 없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한다. 오색 지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탐방객들은 119에 구조요청을 하지만 가장 먼저 오색분소 안전관리반 직원들이 출동한다.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오색지구 지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119헬기가 환자 이송을 할 수 없을 때는 직원들이 직접 업고 내려오기도 한다. 단풍철엔 한 달에 30~40건 정도의 구조요청이 들어온다.

남설악 산악구조대에서 23년간 활동하다가 3년 전 오색분소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영록 반장은 단풍철이면 휴무일에도 오색 인근을 떠나지 못하고 항상 휴대전화를 끼고 긴장상태로 대기한다.

“다친 탐방객을 업고 산길을 내려오는 일은 힘들죠. 하지만 도움을 받았던 탐방객들로부터 종종 감사의 편지나 전화를 받을 때면 보람이 있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현영록 반장은 힘들었던 순간을 모두 잊게 된다고 한다.

인명구조뿐 아니라 오색분소 직원들은 동물 구조 활동과 현장관리 시설보수,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여름에는 계곡 물놀이 단속, 가을에는 버섯이나 도토리채취 단속, 불법산행 감시 등 계절별로 바쁜 일과를 보낸다.

양양지역경기에 보탬이 돼서 뿌듯해요

정춘호 분소장은 국립공원에서 근무한 지 26년, 오색분소에 발령 온 지 3년 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해 만경대를 개방했을 때이다. 만경대를 찾은 많은 탐방객들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다.

“요즘은 만경대 재개방을 앞두고 보수작업을 하느라 직원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지만 만경대 개방으로 탐방객과 지역민들이 좋아하고 무엇보다 양양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뿌듯합니다.”

그 힘으로 하루에도 2~3번씩 만경대를 오르며 탐방로를 안전하게 다듬고 있는 정춘호 분소장은 가을철 오색 단풍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과 당부도 잊지 않는다.

“능선에 있는 단풍보다 계곡 단풍이 물기가 있어 더 예뻐요. 오색 계곡 트레킹을 추천합니다. 산을 탐방할 때는 아무리 난이도가 낮은 코스라도 등산화와 스틱, 갈옷 한 벌 정도는 꼭 챙겨주세요. 설악산은 산세가 험하니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탐방로만



다니고, 쓰레기는 꼭 되가져오기! 이 정도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오색지킴이, 오색분소 직원들이 가을손님맞이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오색의 가을빛은 깊어가고 있다.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선림원지

양양 선림원지(禪林院址)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산지가람(山地伽藍) 선림원지를 탐방(探訪)하다!

선림원지(禪林院址)는 양양군 서면 서림리 424번지 미천골(米川谷)에 있었던 사찰로 절터만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선림원지라 부르며 강원도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삼층석탑, 석등, 홍각선사탑비, 부도 등의 중요 국보급 문화재들이 분포하고 있다.

지난 1948년 이 절터에서 출토된 신라범종(新羅梵鐘)의 내부 명문(銘文)중에는 해당 사찰명이 아닌 약칭(略稱)으로 '당사(當寺)' 즉 이 절로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것은 선림원지를 2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는 억성사(億聖寺)라 하고,

그 외 학자마다 사림사(沙林寺) 또는 선림원(禪林院)이라 학술지를 통해 주장을 하고 있어 하나의 사찰 이름이 셋으로 나뉘어 불려지고 있다.

지금의 선림원지는 명칭 상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선림원지(禪林院址)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찰 명칭에 대해 중국 당나라 때에는 사(寺)와 원(院)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즉 사(寺)는 사찰 전체를 가리키는 여취로, 원(院)은 사찰 속에 있는 특정한 기능의 별사(別舍)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 들여 사용한다.



선림원지 삼층석탑



선림원지 홍각선사탑비



선림원지 석등



선림원지 승탑(부도)

선림원지(禪林院址)는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법사(順應法師) 등이 창업하였다고 하는데 그 연대의 추정을 이 절터에서 신라시대의 범종이 출토되면서 주조연대가 애장왕 5년(804)으로 밝혀져 절도 이때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범종의 명문(銘文)에는 '당사(當寺)'라고 표기 되

어 이 절은 선림원(禪林院)이 아니라 사(寺)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명문(銘文) 중에 "이 절의 옛 종 쇠 이 백 이십정을 밀천을 삼음이라 한 것은 순응법사가 이곳의 범종을 주조하기 전에 이미 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아도 크게 빗나간 추론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홍각선사가 이곳 절 이름을 명명(命名)한 것으로 추정하다!

이곳 사찰의 이름에 관한 문헌(文獻)은 여지도서, 양주읍지, 관동지 등 다수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고, 양양부사를 지낸 명암 이해조(李海朝)의 1709년 재임 시 남긴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 양양삼십경) 시(詩)에 "사림사(沙林寺)"란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대사헌을 지낸바 있는 홍경모의 관암전서에 "신라 설악산 선림원 홍각선사비는 옛날 양양의 사림사에 있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선림원'과 '사림사' 두 절이 신라 하대에 이곳에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해 한용운이 지은『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에는 신흥사.백담사.영혈사 등 사찰을 중수하거나 이전 복원 한 경우 기존의 사찰명칭과는 무관하게 개명한 것으로 기록 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불문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홍각선사가 함통 말년(870)에 이곳 역성사로 다시 들어와 머물면서 퇴락한 절의 금당과 누대를 대대적으로 중창한 후 기존의 역성사(億聖寺)를 사림사(沙林寺)로 개칭하고, 별사(別廬.승방지)를 선림원(禪林院)으로 명명(命名) 하였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림사와 선림원이 대등관계가 아니라 사림사에 속한 선림원 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향후 호칭도 '사림사의 선림원' 또는 '사림사 경내의 선림원'으로 불러야 한다. 왜냐면 그동안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신라 천년고찰의 명칭이 현재까지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기회에 절 이름을 바로 찾아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켜야 한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군, 2018년 창의시책 구상 보고회 개최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청사진 제시 및 신규시책 보고 지역개발의 시기 놓치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할 것

우리군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행정·재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책 발굴과 내년도 군정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및 당초예산 편성을 앞두고 11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창의시책 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2018년도 대내외적 여건과 대응방안,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 신규 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시책 등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창의시책사업 등 118건의 시책이 보고되었다.

관광 활성화 시책으로 ▶양양국제공항 담장벽화거리 조성 ▶관광안내소 임산부 휴게공간 설치 ▶서핑활성화를 위한 야외 샤워장 조성 ▶해수욕장 흡연부스 설치 등이 제시되었고,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세고지서 금융 앱 송달사업

▶황혼육아 지원사업 ▶공원, 등산로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 사업 등이 발표됐다.

또한 지역경제 및 개발 분야로 ▶씨푸드 청년물 조성사업 ▶전 군민 친절아카데미 운영 ▶송암·연창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남면 인구리 일원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이 제시됐으며, 이밖에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사업 ▶온라인 쇼핑몰 전담부서 운영 ▶업무조정을 위한 공무원 배심제 운영 등의 시책이 제안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주요시책과 핵심사업 중 사업효과가 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규모, 추진일정, 재원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내년도 군정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지역개발에 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670-2101)



예산 3천억 시대 · 지방채 제로 달성 2017년 제2회 추경 3,174억원 최종 의결

기정 대비 270억원 증액,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주민생활 안정 도모
2013년 지방채 241억원 → 2017년 말 제로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70억 7,600만원이 증가한 3,174억 1,600만원(일반회계 2,964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209억 2,100만원)으로, 지난 22일 열린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주요재원을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액과 재산세·자동차세 증가로 지방세가 29억원이 늘어났으며, 지경관 광지 조성사업 군유지 매각과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로 세외수입도 41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아울러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14억원, 조정교부금이 4억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정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47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20억원, 해변철책 철거사업 11억 2천만원, 양양웰컴센터 조성사업 10억원, 양양교~도서관 전선지중화 9억원,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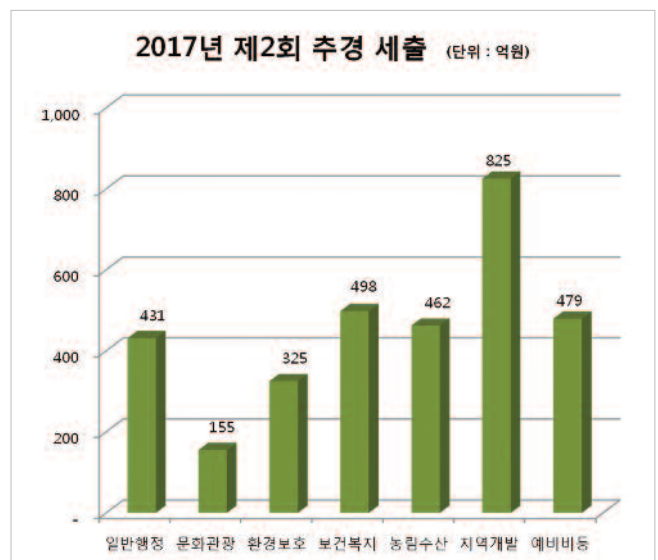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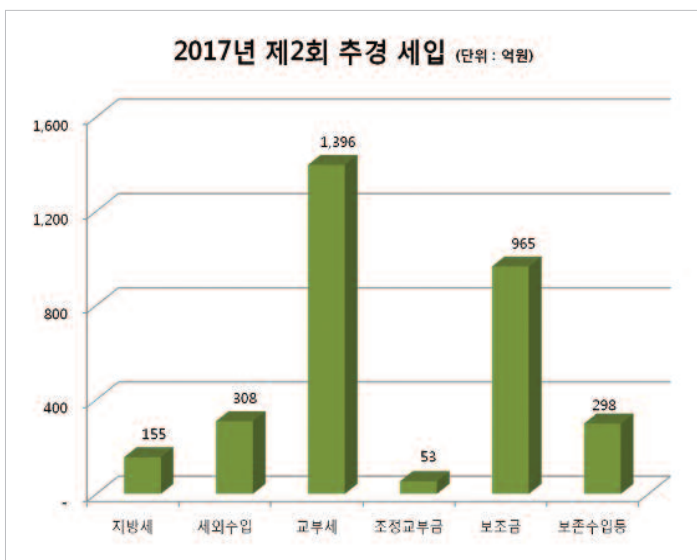
IC 연결도로 개설공사 7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소득 보장 증진 8억원,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3억 7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4억 5천만원, 가뭄대책 긴급지원 9억 4천만원과 대체재산 취득에 13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2002년 수해복구사업과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차입했던 2013년도 말 기준 241억 원이던 지방채 중 최종 잔액 32억원 5천만원을 모두 상환토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올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우리군은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자원 확보에 주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군비 매칭 비율이 낮은 국비 확보노력과 교부세 산정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3천억 시대, 고품격 명품도시로 우뚝 선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670-2108)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80억원 투입, 양양읍 시가지 생활경제 · 관광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남대천 하천정비와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전선 지중화,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양양읍 시가지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생활경제 및 관광서비스 중심지로 집중 육성된다.

우리군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5일자로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승인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2019년까지 총 80억원이 투입되어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에 10개 세부사업(H/W 4, S/W 6)이 추진된다.

먼저 전통시장 다목적광장이 조성되는 남문리 210-36번지 999㎡ 일원에는 양양 경제 선순환의 거점이 될 '양양나들장'이 들어선다.

남대천 제방도로 측면에 필로티공법을 적용,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1층에는 나들쉼터와 필로티광장을 2층에는 웰컴센터와 나들마켓을 조성한다.

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3층에는 향토음식체험관(푸드코너)과 전망대, 매표소를 4층에는 59석과 38석 규모의 영화상영관 2개소를 만들어 경제 선순환과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다목적광장과 양양나들장 건너편 남대천둔치 28,971㎡ 면적에는 연어가 회귀하는 공원 '어화원(魚花園)'을 조성해 관광명소화한다.

이벤트공원과 나무시장, 카트보관소 등이 설치된 이벤트존(10,164㎡)과 야생화, 가로수가 식재된 야생화존(18,807㎡)을 통해 '한여름 황금야시장'을 운영하는 등 여름 피서철 해변에 집중된 관광객을 양양읍 시가지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둔치 23,099㎡ 면적에 친환경주차장 3개소(제1주차장 350면, 제2주차장 118면, 제3주차장 58면)를 조성하고, 양양시장과 남대천둔치를

관통하는 박스형 보행통로(연어나들목)를 만들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양시내의 중심도로인 군청 사거리부터 새한공업사 앞 사거리까지 500m 구간의 보행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이 구간 주행차로와 주·정차공간을 분리하고, 차량속도 저감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및 교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버سی용쉼터와 벤치를 설치해 보행약자를 위한 친화 중심가로로 조성한다.

이밖에 양양나들장 운영주체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한여름 황금야시장 운영 시스템 구축, 주민이 참여하는 시내권 경관 개선 활동, 사업추진단(PM단) 구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 발굴도 본격화된다.

우리군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남대천 하천정비와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전선 지중화, 작은영화관 조성 등 타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 추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양양전통시장과 남대천둔치를 비롯한 양양읍내 시가지 일원을 생활경제 및 관광서비스의 거점공간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전략사업과 현안사업담당(670-2266)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농산물 생산자 공동 사용, 개별 시설투자 없이 농업인 창업 길 열려
식품제조공장 허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까지 가능한 고품질 가공품 생산여건 마련

우리군이 농촌진흥청 ‘2018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신규 지역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다양하게 상품화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기 위한 6차 산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개별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영농조합법인과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사업에는 국비 5억원과 군비 8억원 등 총 13억원을 투입되며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10,629㎡에 건평 330㎡ 규모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고, 식품제조공장으로 허가를 받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까지 가능한 고품질 가공품 생산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년차인 2018년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2년차인 2019년부터

는 가공센터 내에 가공설비와 기반시설 설치, 가공센터 전담 운영인력 확보와 식품제조 허가,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군은 본 사업 착수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전문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력생산 가공품목 등을 선정하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비로 가공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배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농업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군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인 양양몰을 연계해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생활자원담당(670-2338)

사업량 -1동(330㎡)/센터 내 부지 (손양면 송현리 280-5번지 10,629㎡ 일원)
 사업기간 -2018~2019 (2년간)



해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본격 추진

하조대 · 정암 · 남애3리 해안 경계철책 1.6km 10월말까지 철거 마무리

우리군이 해안경계 관할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토대로 이달 중순부터 하조대와 정암, 남애3리 등 유명 관광지 해안선을 가로막고 있는 군(軍) 경계철책을 철거하기로 했다.

올해 철거대상은 하조대해변 518m, 정암해변 639m, 남애3리해변 437m 등 약 1.6km 규모의 해안철책이다.

우리군은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에서 열영상카메라 등 경계철책 대체장비 검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10월말까지 해당구간 해안철책 철거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중광정해변 250m와 잔교해변 370m, 북분해변 300m 구간의 해안 경계철책이 철거된다.

군은 국·도비 7억 9,750만원을 포함한 12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올 연말까지 복합감시장비 2대, LED경계등 19

개소 등 대체장비 설계용역 및 구매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920m 구간 경계철책을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진행된다면 모두 3.67km의 해안철책이 철거되어 지난 2015년 1월,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논의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

우리군은 지난해에 동호해변 경관형펜스 450m를 시작으로 지경해변 150m, 대명솔비치 앞 해변 450m(민간업체 추진), 동산해변 100m(민간업체 추진) 등 1.15km 구간 해안철책을 철거한 바 있다.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670-2251)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양양군이 변하고 있다

양양군 중장기 계획 및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 강원연구원 · 희망양양 열린포럼 공동 주관

강원연구원(원장 육동한)과 희망양양 열린포럼(회장 이두순)은 지난 16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양양군이 변하고 있다’를 주제로 강원포럼을 개최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 양양을 동해안의 중심거점도시로 육성시키고 있다”며 “오랜 기간 지켜온 양양의 자연환경과 경관자원을 유지하고 주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 발전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순 희망양양 열린포럼 회장은 “양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양양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장기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축사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해제 등 지역개발의 호재를 맞아 개발가능용지 확보, 군도 등 도로인프라 확충, 시내권 재생정책 등을 추진해왔다”며 “우리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광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이 제시되길 바라며, 긍정과 화합의 에너지를 함께 모아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태동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30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본 구상을 발표했으며 김덕만 희망양양열린포럼 부회장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양양군 관광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윤석원 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김연식 희망양양열린포럼 사무국장, 김영표 가톨릭관동대 교수,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재섭 경기대 교수, 진종호 양양군의원, 한정임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관광 푸드트릭 창업지원, 사계절 체험관광상품 개발, 서핑을 키워드로 한 미래해양레저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관광비수기 황어를 테마로 한 관광객 유치, 공영터미널의 조속한 이전을 통한 교통망 확보, ‘서핑버스’ 등 특화버스 운행, 인근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정책 수립과 범 군민적인 친절운동 전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현북면 어성전권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준공

일일 하수처리용량 80톤
어성전1·2리 146가구 생활오수 처리 가능

우리군이 남대천 상류지역인 현북면 어성전권역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수질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대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어성전리는 펜션 등 숙박시설과 주택, 음식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지역이지만,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환경오염 등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기존 마을하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총사업비 46억 9,400만원(국비 3,286백만원, 도비 422백만원, 군비 986백만원)을 투입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1일 하수처리용량이 80톤인 하수처리장과 맨홀펌프장 10개소를 신축했다.

또 7km 길이의 오수관로를 매설하고, 이 일대 146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해 어성전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신축된 하수처리시설은 처리면적은 0.351km², 처리인구수는 상주인구와 관광인구를 포함해 615명으로 설계되어 어성전1·2리 146가구의 생활오수는 물론 인근 숙박시설의 오수까지 공동 집수처리가 가능하다.

어성전권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양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한 관광지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환경관리과 하수도담당 (670-2526)

양양읍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거 일제정비

2018년부터 3년간 71억원 투입
양양읍·현남면 일원 7.4km 관로 교체

우리군이 파손된 하수관로로 인한 위험요소 제거와 원활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입, 양양읍과 현남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매설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하수관 7.448km이다.

오래된 하수관의 경우 일부 찌그러짐 현상이 발생해 오수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며, 부분파손 등으로 오수가 새거나 불명수가 유입돼 하수도 유지관리를 어렵게 한다.

특히 태풍이나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일시에 많은 빗물이 하수관로에 유입되면서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고,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군은 앞선 2015년에 3억 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양읍 전체지역과 현남면 일부지역에 매설된 20년 이상 하수관로 63km를 대상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7.5km 구간에서 하수관 파손과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환경부에 2018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당지역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신청했으며, 내년 초 시설계용역을 추진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가 2020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우리군은 최근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하수관로의 교체 및 개보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국비를 확보해 지속적으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환경관리과 하수도담당 (670-2526)



양양의 이모저모 **의기양양**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 1 올해도 풍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 2 더 빨리~! 더 멀리! 양양군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
- 3 인사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문화시민대학 개강
- 4 꿈을 키우다.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현장체험
- 5 담배피지마세요!! 흡연예방손인형극
'호랑이 아저씨 금연 대작전'
- 6 양양군 수리선수단 파이팅!
제6회 경로당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 7 화이팅~! 양양군게이트볼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양양군의회, 케이블카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양양군의회 의원 전원은 오한석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지난 8월 31일 주민 714명의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해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오한석 위원장은 감사청구서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 불허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 조속한 처분을 해야 할 문화재청이 의무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마저 부정하는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행태는 행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으로 우리 양양군민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남은 절차에 법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 재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재결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의 최고이자 최후의 결정인 중앙행정심판위

원회의 결정마저도 부정하는 문화재청 공무원들의 행태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칙 없는 사회’, ‘갑질 없는 정부’를 위한 행정부인지 의문이 가며,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양군민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하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이기용)는 9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간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례안 18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중점심사 했다.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된 조례 5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13건 등 총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심사 하였다.



양양군의회 하반기 의정연수



양양군의회 이기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하반기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를 9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하였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정창수 박사로의 지방행정 현장사례 이해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기법 강



의, 안병도 교수의 공직선거법강의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역개발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지역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뜻깊은 의정 연수시간을 가졌다.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통신

우리 마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마을이장님!
이장님을 통해 마을 소식을 듣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코너, 이장통신.
우리마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현북면 잔교리 (남의선 이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잔교리 마을이 '쟁기동 민속놀이'라고 하여 양양 대표 농악과 민속놀이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양양을 대표하여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와~대단하시네요~!그럼 쟁기동 민속놀이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주세요~



매년 음력 설을 기점으로 정월대보름까지 마을의 가가호호를 돌면서 마을의 안녕과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살을 막아 집안의 평안을 기원해주는 놀이문화지요 우리 잔교리 마을에서는 사라져가는 농악과 놀이문화를 보존하고 쟁기동 민속놀이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하나가되어 계승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쟁기동 마을입니다. 사진보니 절로 흥이 납니다. 마을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현면 석교리 (김남열 이장님)~

안녕하세요~석교리마을회관에 예쁜 현판이 달렸다면서요?

네~우리마을이 2017년도 봄철 소각 및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어서 마을회관에 현판식을 했습니다.



녹색마을로 선정되었다니 축하드려요.

양양에서 2017년 봄 동안 산불2건과 그 외 6건의 불이 있었는데, 강현면에는 단 한건의 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석교리마을 주민들은 농촌에서 종종 있는 소각행위 또한 없었기에 녹색마을로 선정될 수 있었지요. 마을주민들이 산불철에는 스스로 산불진 화대가 되어 적극적으로 산불을 예방·순찰하고, 소각행위 또한 누가 시키거나 감시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집쓰레기 및 농업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지요.

석교리의 녹색마을 비결은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네요. 가을철도 부탁드려요.

네!! 걱정마세요!
우리 석교리마을은 산불 안녕! 입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2017 가을 천년의 향에 취하다 ‘양양 송이’



“어젯밤 식지가 동하더니 오늘 아침 기이한 것을 맛보다
본디 배루에서 나는것과 질이 다르니 복령의 향기가 있도다”
-고려 문인 이인로의 「파한집」 중 -

〈동의보감〉에서는 “송이는 맛이 매우 향미하고, 공기가 있다. 산중 고송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송기를 빌려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무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이다.”라고 하여 송이의 우수성을 말하였다. 송이의 섬유소는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 장암예방 변비와 숙변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등 그 효능 또한 으뜸이다.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진하여 송이종의 으뜸으로 치는 ‘양양 송이’

적송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송이는 숲의 환경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지게 된다. 모든 송이 중 양양송이를 최고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양은 백두대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여름철 서늘한 기온에 의해 토양의 온도가 송이 군사가 최고 성장하는 온도인 23~25를 나타내며, 아침 저녁으로 설악산의 계곡풍과 동해바다의 해풍의 영향으로 건조한 바람에 의해 버섯 자체의 수분함량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며 송이 향이 타 지역의 송이보다 많이 난다.

전국 평균 90.4%의 수분을 함유하지만 양양송이는 87.3%의 수분함량으로 몸체가 단단하여 장기수송도 가능하다.

향으로 한번 식감으로 또 한번 ‘양양 송이’를 맛보다

9월 중순부터 10월 양양의 송이를 맛 볼 수 있다. 송이는 길이가 8cm이상 갓이 퍼지지 않은 것을 1등급으로 치며, 양양송이는 등급에 따라 띠를 두르고 있어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갓이 퍼진 등외 등급이어도 그 맛과 향은 일품이다.

보통 찢어서 그 향을 음미하면서 먹기도 하고 고기와 궁합이 잘 맞기에 소고기와 함께 구워먹거나, 불고기에 넣어먹는다. 조금 더 새롭게 먹고 싶다면 송이라면, 송이칼국수로 먹어보는 것도 좋다. 몇 조각의 송이가 들어갈 뿐이지만 그 향과 맛이 음식가치를 높여 준다. 냉동하면 향은 조금 떨어지지만 장기 보관하여 먹을 수 도 있다.

양양물에서는 송이고추장, 송이과자, 산꿀자연송이, 송이너비아니등 송이를 이용한 가공품도 나오고 있으니 사시사철 송이의 향을 느낄 수 있다.

구매처 : 양양몰(<http://www.yangyangmall.co.kr>) ☎670-2704



가끔은 혼자이고 싶을 때 양양의 가을을 거닌다.



여름이 떠난 자리에 가을이 왔다. 가을을 두고 ‘독서’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걷기 좋은 계절’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싶다.
선선한 바람과 색색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풍경이 우리에게 걷기를 부추긴다.
독서와 사색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 한번쯤 혼자 걷기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혼자 걷는 일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천천히 거닐면서 보이는 풍경들과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줄 터이기에.



빛으로 일렁이는 풍경 속으로 남대천 갈대숲

계절마다 반복되는 풍경인데도 매번 처음 보는 장면인 것처럼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정경이 있다. 양양 남대천 연어 생태공원 내 자리한 갈대숲이 그렇다.
남대천 생태관찰로의 나무 데크길을 따라 펼쳐진 은빛 갈대숲의 풍경에는 사람의 발길을 이끄는 낭만적인 매력이 있다. 햇살이 부서져 내려앉은 듯 반짝거리는 갈대꽃은 바람을 만나 흔들리며 눈앞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머문다. 그래서 되도록 천천히 감상하며 걷고 싶어지는 길이다. 전망대 벤치에 앉아 먼 시선 끝에 걸리는 낙산대교와 남대천의 잔물결을 바라보며 일상에서 긴장으로 꽁 조여 있던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 봐도 좋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마음의 피로를 느끼거나 내 시간을 오롯이 갖고 싶을 때 혼자 조용히 걷다 보면 갈대숲이 선사하는 여유로운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된다.

TIP

남대천 갈대숲 찾아가는 길 :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250



자친 날개 쉬어가는 곳 매호

혼자 떠나는 여정에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풍광은 좋은 벗이 되어준다.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에 자리한 매호(梅湖)는 고요하고 넉넉한 성품을 지닌 훌륭한 벗이다. 국내 최장 걷기 코스인 해파랑길 중 41코스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매호는 물길 이 바다로 이어지는 석호로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생태공간이다. 특히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이곳은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전망 데크에 올라 호수를 바라보면 새들의 한가로운 일상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새들의 날갯짓에도 호수는 잔잔하고 고요하기만 하다. 그 풍경이 혼자 온 나에게 말을 건넨다. 멈춰있는 듯해도 물길은 어느덧 바다로 향하고 있으니 불편한 마음과 번잡한 시름을 마음에 담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말이다.

TIP

매호 찾아가는 길 : 양양에서 강릉방향 7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광진삼거리에서 포매리 우회전하여 현남중학교 입구까지 이동



쌀쌀한 날씨엔 제격인 송이칼국수, 전통시장내 능이칼국수도 일품

가을로 접어들면서 부쩍 선드러운 기운이 밀려온다. 따뜻한 먹거리가 절로 떠오르는 시기이다. 머릿속에 뜨거운 면발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칼국수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나 홀로 여행 중에 가격과 장소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다. 양양에서는 지역성을 살린 특별한 칼국수를 맛볼 수 있다.

가을에 제철인 양양 송이를 썰어 넣고 맑게 끓인 송이 칼국수도 놓칠 수 없는 별미이다. 은은한 송이향에 취해 젓가락 든 손이 분주해지고 그릇이 비어가는 만큼 속은 더욱 든든해진다. 특히 최근 양양전통시장에 새로 선보인 능이칼국수는 요즘 양양에서 가장 핫한 음식 메뉴로 등극되고 있다.

또한 바다에서 온 흥함을 넣고 끓인 얼큰한 흥합 장칼국수는 칼칼한 국물 맛과 흥합의 쫄깃한 식감이 면발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어낸다.



책 이야기

숨소리로 강을 만난다.

세상에는 세가지 슬픈 것이 있는데, ‘할수 있었는데’가 첫째요, ‘해야 했는데’가 둘째요, ‘해야만 했는데’가 세 번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말은 했던 것보다 하지 않음에 대한 늦은 후회일것입니다.

일상속의 자연도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자연을 되찾는데는 잃어버리는 과정보다 몇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잊고 지냅니다.

저자 야마사키 마쓰야키씨는 어느날 동네 앞을 지나는 강을 보게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신의 눈 앞에 보이는 강, ‘다마강’은 자신이 어릴적 일상이었던 강이 아님을 느끼고 다시 원상태로 살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기억속 강은 ‘친근한 우리들의 강’이었으니까요.

책에서 저자가 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제안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야마사키씨는 단순히 강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강의 수질의 개선을 넘어 그는 강을 보는 사람들의 터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버려지는 물고기를 찾아 주인을 찾아주는 ‘물고기 우체국’, 강에서는 생물들을 모아 홍보하는 ‘이동수족관’, 강에 직접 들어가보는 ‘강 자연교실’ 등의 사업이 그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강의 죽음을 두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에 의한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에 의해 버려지는 죽음’입니다. 다시말해 ‘방치’를 주범으로 주장하며 치유로서

강물의 숨소리가 그립다/
야마사키 마쓰야키 지음,
이정환 옮김/알에치코리아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대기근이 온다
우승엽 지음, 처음박스, 2016
- 물과 기후변화
권형돈 공저, 피어나, 2017
- 잘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남종영 지음, 한겨레출판, 2017

주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자연은 깨끗하게 되살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늘 주기만 하는 자연이고 늘 받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더러워지고 엉망이 되어가면서 아낌없이 건네주는 강, 아낌없이 주는 강이기에 무엇인가 어긋나고 있을 때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책, 강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책입니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황언중)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어려운 여자들

록산게이 지음, 김선형 옮김
사이행성/2017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요즘입니다. 억눌린 여성들의 거울을 경유하여 결국 그에 비친 인간들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오해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우리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행운 반드시 아침에 찾아온다

마스노슌묘 지음, 부윤아 옮김
쌤앤파커스/2017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아침은 촉박하고,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촉박하고 분주하게 지나가는 아침이 과연 최선일까요? 저자는 어떻게, 무엇으로, 아침이라는 단추를 잘 끼워 활기차게 보낼수 있는지,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수있는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9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9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오션벨리리조트	1	프론트사무원	09:00~17:00 (주6일)	월150만원 이상
(주)성현남레미콘	1	레미콘운전원	08:00~18:00 (주6일)	급여협의
(주)재성정보통신	1	통신설비유지보수	08:30~18:30 (주5일)	연2,200만원 이상
대동기업	2	플라스틱생산직	08:30~18:00 (주6일)	월160만원 이상
장유종합건설(주) 양양국제공항호텔	2	객실청소원	09:00~18:00 (주5일)	월160만원
양양군민악국	1	악국물품정리원	13:00~20:00 (시간협의)	급여협의
(주)한샘개발	1	세탁원	09:00~18:00 (격주5일)	월150만원 이상
푸른하늘환경(주)	1	전기안전기술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09:00~18:00 (주5일)	연3,000만원
다다엔터테인먼트	00	영화(안시성) 보조출연자 모집 감독 : 신동윤 (010-3850-5390)		1일51,760원 (시급계산)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낙지부대	1	출서빙원	주5일 10:00~15:00	시급7천원
낙산요양원	1	간호사/간호조무사	주40시간 09:00~18:00	협의
설악산밀봉원	1	포장원	주2일 09:00~18:00	일급6만5천원
장유종합건설	2	룸메이드	주40시간 09:00~18:00	월169만원
서면롤게이트 (이라기업)	1	요금징수원	3교대 6시~15시/14시~23시 22시~07시	월180만원
해송케이앤에스	2	포장원	주5일 09:00~18:00	일급5만5천원
휴휴암컷터 맷돌순두부	1	주방보조원	주6일 08:00~16:00	월150만원
대흥반점	1	출서빙원	근무일 협의 17:00~21:00	시급7.5천원
(주)골든에스앤씨	1	조리보조원	2교대 6시~15시/11시~20시	월200만원
	1	사무나관리	주6일 09:00~21:00	
	4	룸메이드	주6일 08:00~18:00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7년 9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양양-제주 9월, 10월 스케줄 안내

운항시간 변동이 크니 꼭 확인 바랍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월	양양발 10:30	양양발 13:30	양양발 14:40	양양발 14:00	양양발 16:40	양양발 11:10	양양발 11:10
	제주발 13:00	제주발 16:00	제주발 17:00	제주발 16:00	제주발 18:35	제주발 13:35	제주발 13:35
10월	양양발 13:20	양양발 13:30	양양발 14:40	양양발 14:00	양양발 14:00	양양발 11:10	양양발 13:20
	제주발 15:35	제주발 16:05	제주발 17:00	제주발 16:00	제주발 16:30	제주발 13:35	제주발 15:35

■ 운항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약 : 인터넷 및 전화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및 문의 1588-2682 (이륙빨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강원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등록안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에 연고가 있거나, 현재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성인재 분 들은 '강원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등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문 성과 역량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등록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직접등록

강원여성인재DB 홈페이지(<http://womandb.gwd.go.kr>) 접속 하거나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접속 → 배너 및 팝업창 클릭, 작성 및 제출

②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신청서 작성 · 제출

붙임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팩스 : 033-670-2456, 이메일 : makim41@korea.kr

우편 : (우25032) 강원도 양양군 안산1길36(양양군여성회관)

강원여성인재DB 담당자

□ 「강원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
- ◆ 전 ·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 전 · 현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자문위원회 등)
-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 ◆ 상장법인과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 확인 기업 등)의 과장급 이상
- ◆ 변호사 · 의사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각종 기술사기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 ◆ 주요 법인 · 협회 · 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
- ◆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 문화 · 예술 · 체육 · 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 · 포장 수여자 및 대통령 표창 수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 문화재 보유자, 명인 · 명장

- ◆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 · 벤처 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 협회 · 단체의 추천을 받으신 분

- ◆ 이 외 인재등록 추천을 받으신 분

* 단, 여성인재DB에 등록된다고 하여 반드시 추천·선임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재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 의 :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670-2776)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모바일 고지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 국민건강보험 : 지역가입 세대주(세대원) 신청
- ◆ 국민연금보험 : 지역가입자 신청
- ◆ 이메일고지와 모바일고지를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 모바일고지를 신청하실 경우 우편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 유선 :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
- ◆ 방문 (국민건강보험 전지사) 및 팩스
- ◆ 4대보험 징수포털 및 공단 앱(M건강보험)
- ◆ 공단고지 앱(MPOST)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수채화 나눔전 〈제5회 양양수채화 회원전〉

□ 일 시 : 2017. 10.18.~10.22.(5일간)

□ 장 소 : 양양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

□ 주 최 : 양양수채화 동호회 (전시 마감 후 작품은 다문화화정에 기증됩니다.)

—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전국 최초의 노·사정 상생+ 모델,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강원도가 근로자분과 사업주님의 상생을 지원합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란?
근로자는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우수인력 유임을 통한 구인난 해소와 장기재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사정 상생+ 협력 모델입니다.

가입기간	납입금액(월)			강원도	근로자 수령액 (5년만기 시)
	계	근로자	기업		
5년	50만원	15만원	15만원	20만원	3,000만원+이자

□ 가입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및 재직 근로자
□ 가입신청 | 온라인 신청(www.sbcplan.or.kr) ☞ 청약 ☞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 (T.033-259-7613 / 655-8876)



뜨뜨가무시증의 최고, 최선의 예방법은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1.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2. 돛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3.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4. 작업 시에는 작업복을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안으로 집어넣기
5.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6.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7.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8. 야외활동 및 작업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나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받아야 합니다.

강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참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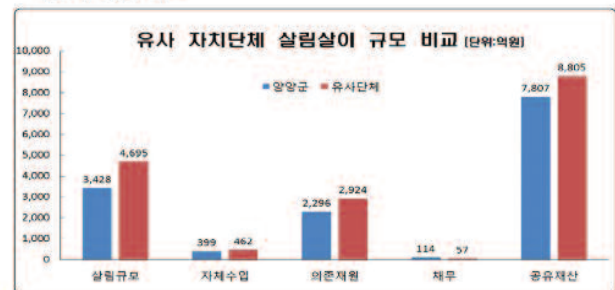
- 신청대상 : 강원도에 거주하는 암 경험자 누구나
- 장 소 : 강원대학교병원 암노인센터 3층 암통합지지센터
- 프로그램 : 위험도평가 및 상담, 집단/개인교육 및 상담, 운동 (통증완화,관리), 각종요법(원예, 미술 등)가족모임 등 지지프로그램
- 문 의 : 강원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033-258-9201

2017년 양양군 재정공시[결산]

2017. 8.

양 양 군 수(인)

- ◆ 우리 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 의존재원 +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28억원으로, 전년대비 40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 자체수입(지방채 및 세외수입)은 331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부담액¹⁾은 557천원입니다.
 -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260억원입니다.
 -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²⁾는 534억원입니다.
-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114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부담³⁾은 420천원입니다.
 - ◇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 건물 등 1,193건 (1,432억원)을 취득하고, 139건(5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7,80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수입(15,157,264천원)을 인구수(27,218명/16.12월말 기준)로 나눈 값임.
- 2)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지방채 발행액 0원으로 보전수입(순세외잉여금, 보조금 전액, 이월사업비)과 내부거래의 합임.
- 3) 군민 1인당 지방채부 : 총 채무액 114억원을 인구수로 나눈 값임.

- ◆ 우리 군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95억원)보다 1,267억원이 적습니다.
 -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2억원)보다 63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924억원)보다 628억원 적습니다.
 -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7억원)보다 57억원 많고, 군민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42천원)보다 278천원 많습니다.
 -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805억원)과 비교하여 998억원이 적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제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20개 군)평균에 비해 전체 살림살이 규모와 지방채 등 자체수입, 의존재원, 공유재산은 낮은 반면, 채무액은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자체수입 증대 및 정부예산 확보, 계획적인 채무관리로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y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최대영
(☎ 033-670-2110, 이메일 : jjcadca@korca.kr)

강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신청해요~!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에!

행정자치부, 외교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체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원스톱 발급**합니다.

신 청 안 내

- 여권 신청자 중 **외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분**
-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받기 희망**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증·여권 **함께 신청·동시 수령**
【준비물 : 신분증, 사진 2매, 수수료】

참고 국제운전면허증·여권 동시 발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확인 필요

문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홈페이지(www.koroad.or.kr), 지방자치단체 및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033-640-3200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에서 연어랑 놀자!

강원도 대표축제

양양연어축제

Yangyang Salmon Festival

2017. 10. 19 (목)~**22** (일)

양양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

참가신청 양양군청문화관광과 033)670-2207, 2724

<http://salmon.yangyang.go.kr>

주최 양양군 주관 양양군축제위원회

